



‘MISS & MR 가비아’ 에 관한 수질 보고서

벤

초기기업의 많은 동호회 중, 회원 '물관리' 하는 동호회가 또 있을까? 웹호스팅 전문업체 가비아의 영화동호회 밈(MIM : Movie Is My Life)의 가입 조건은 최고급 클럽의 수질검사 못지 않게 까다롭다.

회사의 동호회 지원이 시작된 작년 여름,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 냅금 결성된 이 동호회는 회칙을 비롯해, 회장, 고문, 회계 등 그 역사에 비해 조직이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다. 지원금과 별도로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걷어 회원의 일백 퍼센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밈의 동호회 활성화 전략. 한편 가입 조건은 직급을 대리 이하로 제한한 데다 전원 만장일치제다. 초창기 가입을 갈망했던 한 임원이 이 제도의 슬픈 희생양이 됐다는 안타까운 후문도 있다.

“회사 제일의 단합 동호회라 자부합니다. 대리 이하 직원들로만 구

성되어 있어 다른 동호회에 비해 파워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죠.”

동호회의 막내이면서 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원영 사원은 온몸으로 영화 사랑의 아우리를 내뿜는다. 웬만한 모임이나 행사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열혈사원을 중심으로 뭉친 이들의 젊고 활기에 찬 모습은, 회사 동호회라기보다 대학 동아리에 가까워 보인다.

“사실 밈의 실세는 제가 아닙니다. 동호회의 회계를 맡아 통장을 꼭 짬, 회비 걷기의 달인 강진선 씨죠.”

회계를 맡아 일명 ‘통장’으로 불리는 강진선 씨의 알뜰한 자금운영은 적립된 포인트로 회원 전원이 공짜 영화를 보는 쾌거를 이루었다. 회비는 철저하게 걷지만,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영화를 보는 정기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시 다음 달 회비를 깎아 주는 합리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고.

밈은 동호회 결성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정기 영화 관람을 해오며 현재까지 14회의 영화 관람과 4회의 MT 등 몸을 사리지 않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회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1일 빼빼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첫 공개상영회를 추진했으며 이러한 행사를 점차 확대시켜 회사 내 밈의 위상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작년 12월 30일은 그들의 슬픈 결속력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세상이 망년회로 바쁘게 들쭉날쭉할 때 할 일 없는 사람들끼리 영화나 보자고 연락한 것이 그만 12명 전원 참석을 만들고 만 것. 첫 CC(Company Couple)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다는 영화동호회 밈의 선남선녀 십이인.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연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